

■ 공원 탐방

② 사직공원

최근 광주시가 사직공원의 돌담길과 산책길을 깨끗하게 정비했다. 그러나 정작 이곳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발길은 여전히 늘지 않고 있다.

공원을 숲에 비유하자면 사직공원은 '맥주'다. '소주·막걸리'로 칭해지는 광주공원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광주공원이 노인 등 중장년층에 알맞게 조성됐지만, 사직공원은 어린이나 청소년 등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뜻이다. 과거 사직동물원이 자리했고, 30년 넘게 통기타 주점거리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사직공원은 광주의 센트럴파크(Central Park)라고 할 수 있으며, 광주 도심 녹지의 출발점이자 거점이다.



광주의 센트럴파크...동물원 옮겨가고 쇠락의 길



주차장으로 변한 사직공원 사직단 앞.

광주공원의 2배에 달하는 8만5천610㎡의 면적에, 상수리나무 등 39종의 1만631그루의 나무가 숨을 쉬고 있다. 사직공원(사직산)으로부터 광주공원(옛 석거산), 양동 발산에 이르는 녹지 축은 삭막한 회색빛 도심에 녹색과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직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도심 거주인구와 근무자 감소가 그 직접적 원인이 되지만, 시대의 변화와 도시민의 기호에 맞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의 변신에 실패한 것도 그 주된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빛고을시민문화관,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공원이 들어서면서 탈바꿈하고 있는 광주공원에 비해 사직공원은 가로등이나 산책로 등은 갖춰졌지만 여전히 '초라하다'는 것.

나무 1만 6천그루 도심 녹지 거점

여름햇살이 기승을 부린 지난 14일 오전 찾은 사직공원에는 사람이 아니라 차량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주정차 차량은 물론 광주전 천변도로에서 맞은편인 남구나 서구 방향으로 지나가는 소위 '통과 차량'이 지나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나무 데크를 간 넓은 산책로가 눈에 들어왔지만, 그곳을 지나는 사람은 없었다. 간혹 점심을 먹은 직장인 또는 사직공원 내 광주영어방송국이나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찾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광주 도심의 대표 녹지는 그 소중함만큼 시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사직공원 입구에 즐비한 통기타 주점.

사직공원 입구에서 전통찻집을 운영하는 사공(43)씨는 "18살 때부터 사직공원에서 기타를 치며, 25년을 함께 했지만, 최근같이 공원에 사람이 없는 경우는 없었다"며 "도시민이 찾을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특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0~80년대 관람객 넘쳐나 전성기

사직공원의 전성기는 사실 1971년 사직동물원이 들어서면서부터다. 호남지역 유일한 동물원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 넘쳐났으며, 1991년 우치동물원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광주의 대표적인 위락공간이었다.

공원 입구에는 파출소가 생겼고, 주변에는 음식점과 주점들이 손님들을 받느라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동물원이 빠져나가면서 1993년 과거 국도의 신(社)과 오곡의 신(稷)에게 제사를 모셨던 사직단이 부활하고, 그 뒤로도 각종 시설이 들어섰지만 쇠락해가는 도심 공원을 되살리기에 역부족이었다.

사직공원은 광주도시계획연혁(1992년)에 따르면 지난 1967년 도시계획공원변경을 통해 광주공원과 분할했으며, 당시 면적은 7만5천900㎡이었다. 입구의 경향 충혼탑과 정나교가 1914년 석서정 자리에 건립해 광주시에 기증한 양파정이 있으며, 숲길을 따라 10여 분 정도 오르면 전망대가 나온다. 4층의 전망대에서는 숲에 조금 가리지만, 광주 구도심과 무등산 자락을 볼 수 있다. <계속>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도시제안

계림·동명·양림·방림·농성동 등은 광주에 남아 있는 대표적인 단독주택지이다. 이 지역은 곧 재개발 예정구역이 됐으며 일부 아파트들이 들어섰으나, 최근 그러한 계획은 건설경기 침체, 사업성 미흡 등으로 인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따라서 단독주택지역을 모두 밀고 아파트를 건립하는 기존의 재개발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재개발은 기존 거주민들이 아닌, 사업자나 외지인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했다는 비판도 있다.

도심의 단독주택지를 살리는 방안의 시작점에 있는 것이 바로 골목길이다. 과거 골목길은 이웃을 연계해주는 매개체였으며, 동네 사랑방이었고, 놀이터였다. 골목길로 인해 '정취'가 생겼고, 주민들은 서로 의지하며 삭막한 도시생활을 이겨내곤 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골목길은 '편리'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넓혀졌고, 아스팔트가 깔리고, 자동차들이 점령하게 됐다. 또 젊은 주민들은 대부분 외곽 택지지구로 빠져나가고, 이주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남아 단독주택지역의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안전'을 고려한다는 명분

동네 사랑방, 아이들 놀이터 골목길 살려야 도심이 산다

아래 소방도로를 만드는 방식으로만 추진되면서, 주거환경개선은 골목차장을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방림동 골목길

지난 2007년부터 교수, 전문가, 학생 등으로 구성된 '미래를 위한 발걸음 - 있다림'은 광주지역 골목길을 탐사하고 있다. 이들은 탐사 결과를 자신들의 다음카페(cafe.daum.net/linkarang)에 올리고 있는데, 이 자료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지의 골목길이 '사람이 지나고 노니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도 없이 차도만 존재하는 골목길, 자동차로 꽉 차 있어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의 골목길, 오랜 시간 방치된 채 낡은 골목길 등.

이 모임 전담해 조경학과 조동범 교수는 "탐사 결과 이야기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등 그 가치가 뛰어난 골목길에 상당수 있음을 알게 됐다"며 "그러나 획일적인 주거환경개선 속에 이들 골목길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등 단독주택지역 쇠퇴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이미 '마치나미(まちなみ) 보존 운동'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거리와 골목길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일깨우고 있으며, 유럽 각 국가들도 주택지의 골목길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골목길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CBS radio and TV services, featuring '노컷뉴스' and contact information for 060-600-1031.